

민주당 단독 과반이나 통합당 저지나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 후보인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서울 송파구 잠실 세내역 앞에서 송파갑 조재희, 송파을 최재성, 송파병 남인순 후보와 유세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종로 후보인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이 12일 청계광장에서 광진을 오세훈, 동작을 나경원 후보, 유승민 의원 등과 함께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사전 투표율 역대 최고치 기록에 여야 쟁점 분주 민주당, 수도권 91개 지역구 우세 진단 '130석+α' 전망 통합당, 대구·경북 싸움이 장담... '110+α' 확보 예측

4·15 총선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야 각당의 쟁점이 분주해지고 있다.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12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53개의 석 가운데 '130석+α (알파)', 미래통합당은 '110+α'를 확보할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47석이 걸린 비례대표의 경우 두 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석을, 미래통합당은 15석을 각각 예상했다. 이를 합산하면 민주당은 지역구와 시민당 비례대표 의석을 합해 최소 147석을, 통합당은 미래통합당 비례 의석을 합해 최소 125석을 얻을 것으로 각각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서울 49

석, 경기 59석, 인천 13석 등 총 121석으로 전체 지역구의 절반에 달한다. 직전 총선의 수도권 스코어는 민주당 82석, 통합당(당시 새누리당) 35석이었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91개 지역구에서의 우세를 점했다. 이는 전체 수도권 의석의 75%에 달하는 수준이다. 반면 통합당은 수도권에서의 경합우세 또는 경합 지역을 경합이나 경합열세 지역으로 상당수 조정했다. 확실한 승리를 장담하는 지역은 14곳 정도다. 양당 모두 경합지로 꼽는 동작을(이수진 vs 나경원), 광진을(고민정 vs 오세훈), 송파을(최재성 vs 배현진) 등은 여론조사마다 앞지러다뒤지러하는 초접전 지역으로, 투표합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의석이 걸린 경기도(59석)는 민주당이 40석 이상, 통합당이 5석 정도를 우세권으로 판단했다. 13석이 걸린 인천에서 민주당은 7석을 우세권으로 판단했고, 통합당은 연수를(민경욱) 1곳을 우세권으로 봤다. 정의당은 경기 고양갑(심상정)을 '경합우세'로, 인천 연수를(이정미)를 '경합' 지역으로 판단했다.

대구·경북(TK·25석)은 전통적인 강자인 통합당이 의석을 '싸움'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현역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김부겸), 북구를(홍의락) 지역구 경합 또는 경합열세로 판단하는 등 TK 지역에서 1곳의 승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부산·울산·경남(PK·40석)에서 민주당은 현상 유지를 기대했다. 민주당은 직전 총선에서 부산 5석·경남 3석 등 총 8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부산중구·영도(김비오), 울산 북구(이상현) 등을 당선 가능성

이 높은 우세권이라고 판단했다. 부산진갑(김영춘), 사하갑(최인호) 등도 경합 우세 지역으로 분류했다.

민주당은 호남(28석)에서 26곳의 우세를 점했으며, 통합당은 호남 28개 지역구 중 8곳만 후보를 냈지만 모두 열세로 보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총 28개 의석이 걸린 충청에서 민주당은 최소 18석을 당선 가능성이 큰 '우세권'으로 보고 있고, 통합당은 13곳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자체 판단했다.

모두 8석이 걸린 강원 지역 판세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백중세로 요약된다. 민주당은 20대 총선 당시 강원에서 1석을 얻는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최소 3석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3석을 두고 정쟁전을 벌이는 제주에서 민주당은 '싸움'을 전망했다. 통합당은 제주갑만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여야 '입단속 모드'

총선 D-2 ... 막말·네거티브 폭로 등 막판 돌발 변수 경계

12일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당이 후보자의 막말과 네거티브 폭로 등 돌발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미래통합당 일부 후보들의 '5·18 막말'이 광주·전남 총선 판세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여야 모두 막판 변수를 경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마감된 사전투표율이 26.69%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는 내부 분석을 바탕으로 '조심 모드'에 돌입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전남지역 사전투

표율이 전국최고인 35.77%를 기록하고, 광주도 32.18%로 나타나면서 18석 전석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후보군들도 '몸을 낮추고 말을 줄이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실제, 앞서 주동식 미래통합당 광주 서구 갑 후보가 "광주는 80년대 유산에 사로잡힌 도시,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로 추락했다. 매달 세월호 하나씩만 만들어 침몰시키자"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이 앞다퉀 성명서를 발표했고, '민주당에 대한 배양'이 더

거세했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선거 막바지 '폐가툼급 의혹 제기'로 네거티브전이 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이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해 총선 목전에 'n번방 사건' 여론 인사 연루설 등 근거 없는 폭로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통해 '선제적 방어'에 나섰다. 통합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관측에 선을 그었다. 지난 10일 여론 인사 연루설 등 n번방 사건 관련 제보의 공개 가능성을 거론했다가 폭로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선부른 네거티브 폭로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장 김종진 위원장은 "정확한 확인도 없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쓸데없이 상대방에게 비미를 준다"고 경고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학력·재산 허위 기재 후보 광주선관위, 검찰 고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신고 공보물에 학력·재산·납세에 대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광주지역 주민자치위원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사전투표소 단속과정에서 차량으로 선관위 단속 직원을 치고 달아나 A씨를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광록·김형호 기자 kroh@kwangju.co.kr

총선 라운지

윤영덕 "4·19, 5·18 역사 바로 잡겠다"

광주 동남갑 후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후보는 12일 호남 4·19혁명단체 총연합회를 찾아 "호남 출신 희생자 80위에 추모 제향하고 '관련법을 제정해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후보는 "역사는 우리의 현재를 비추어볼 수 있는 거울이며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다볼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한다"며 "60년이 지난 지금 시



점에서도 역사적 진실을 놓고 충분히 만족할만한 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움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4·19와 5·18은 이어지고 서로 만나고 우리의 과거사를 바로잡는 일들에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의향의 정신을 현재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장병완 "남구 위해 마지막 일 할 기회달라"

광주 동남갑 후보

민생당 장병완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후보는 12일 "남구를 위해 마지막 일 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장 후보는 "10년간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남구만 바라보고 광주 발전을 위해 일했다"며 "코로나19 경제위기가 현실화 되는 지금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광주발전을 위해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 후보 8명 모두 국정정협도 전혀 없는 사실상 '초짜'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박지원 "학원강사·대리기사도 생활자금 지원을"

목포시 후보

민생당 박지원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는 12일 "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잃은 방과 후 교사와 학원강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에게도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후보는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이 2월부터 중단되고 개학 대신 온라인 등교를 하게 되면서 방과 후 교사들은 최소 5~6개월을 수입 없이 버티야 하는 형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시간제 학원 강사들도 상당수가 해고 통보를 받아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도 못 받고 있는 데다 정부의 생계지원대상에서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여수 상포지구 문제 정치 쟁점화 말라"

피해자모임 비대위원장 성명

4·15 총선을 앞두고 여수갑 선거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여수시 상포지구 개발 특혜 의혹 논란에 대해 피해자들의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정치 쟁점화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유한기 위원장은 12일 성명을 내고 "비대위는 상포지구 문제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앞으로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포지구 문제가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상포지구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대해 "비대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비대위를 방자한 기획부동산 관계자들이다"고 주장했다. 상포지구 인허가 개발 당시 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에 대해선 "검·경의 1년 3개월 수사에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감사원 결과에서도 직접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주 후보가 더는 상포지구 문제로 인해 정치적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희 기자 chkim@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해방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관동지점 문충지점 266-4150	영남지점 양산지점 573-4150	충청지점 운암지점 528-4150	호남지점 운암산지점 513-4150	제주지점 매곡지점 572-4150	충남지점 침단지점 576-4150
------------------------------	------------------------------	------------------------------	-------------------------------	------------------------------	------------------------------